

‘문학 한류’ 빠진 일본인들 ‘5월 광주’ 만나러 온다

일본서 독립서점 운영 김승복 쿠은 대표
한강 ‘소년이 온다’ 독서토론회 등 개최
한국 작품 번역·출간 ‘문학 한류’ 이끌어
문학기행단, 11월 5·18모지 등 방문키로



흔히 한류를 일컬어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한다. 그 가운데 '문학한류'는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가장 손쉽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야다. 물론 번역이라는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문학은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 분야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난해 광주 출신 작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래 '문학한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당시 번역을 한 데버러 스미스는 작가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잘 이해하고 영어로 번역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한강의 또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창비·2014)가 광주의 5월을 다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지난해 영미권에서 번역출간 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소설은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부조리한 폭력에 맞서 시위현장에서 나서야 했던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을 절절하게 풀어낸다.

광주 오월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 돌풍과 맞물려 광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학 한류'에 빠진 일본인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유적지를 둘러보는 문학기행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일본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문학 한류'를 전파해온 도서출판 쿠은의 대표 김승복 씨가 오는 11월 광주로 문학기행을 온다.

이 같은 소식은 전라도닷컴 황풍년 대표가 밝힌 것으로 황대표는 "김승복 씨가 작은 출판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 올 봄에 광주에 온 적이 있다"며 "당시에 문학 한류 차원에서 가을에 광주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아다치 에미, 김승복 대표, 사이토 노리다카 일본 출판사 관계자들. <출처 cafe.daum.net/seokhue>

이어 "문학기행단은 전남대, 5·18 국립묘지, 상무대, 구 전남도청 등 광주의 5월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복씨가 일본인문학기행단을 이끌고 광주를 계획하게 된 데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도쿄 서점가에 있는 북카페 '책거리'도 운영하는 김 대표는 '소년이 온다'를 독자들에게 읽고 독서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독자와 5·18 관련 강연회에 참석하면서 소설 속에서 그려진 광주를 직접 방문해 일본인들에게 광주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에 따르면 김승복 씨의 고향이 전라도다. 1990년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한국 문학 관련 도서 등을 번역하며 '문학 한류'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다.

"김승복 대표를 만나게 된 계기는 올해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지역도서코너에서였어요. 지역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등을 읽고 꼭 광주에 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 문학기행단은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라도닷컴을 방문하고 이어 여수로 이동해 엑스포해양공원 등도 탐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복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 쿠은은 '새로운 한국 문학 시리즈'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펴냈다. 신경림, 구효서, 김연수, 김중혁, 박민규, 권혜영 등 모두 16권의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 출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40m 높이 5·18민주화운동탑의 알모모 조형물은 당시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이들의 부활을 상징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가을 밤 풍류 즐겨보세

시립창극단 '가을을 그리는 타현' 14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창극단(이하 시립창극단)이 수시공연 '가을을 그리는 타현'을 선보인다.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에서는 '가을의 풍류'를 주제로 가·무·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

50여 명의 시립창극단 예술단원들이 펼치는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민속예술의 진수를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시립창극단의 색깔을 더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박종선류 아쟁 산조',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등의 산조 공연과, 신명나는 모듬북 협주곡 '타', '쇠

춤', '소고춤', '버구춤' 등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유명한 예술감독은 "몸과 마음이 풍성한 가을의 정취 공연에 답이 전달하고 싶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을밤의 풍류를 즐기고 국악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989년 창단되어 한국음악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온 광주시립창극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 선율을 놓치는 가을밤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6-036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극단 젊은 태양 '갈매기는 없다' 공연

오늘 순천문예회관

순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 '젊은 태양'이 연극 '갈매기는 없다'를 무대에 올린다.

12일 오후 8시, 13일 오후 7시40분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갈매기는 없다'는 올 초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초연 후 많은 관심을 받아온 연극이다.

안톤 재홍의 4대 희곡 중 '갈매기'를 모티브로 셰익스피어의 '헨릿' 에피소드를 융합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각색했다.

연극은 ▲태호의 고통 ▲아라의 선택 ▲광수의 욕구 ▲민아의 갈매기 ▲문선의 아픔 ▲미희의 집착 등 각자 서로의 상황과 생각에만 갇혀 다른 이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극 중 또 하나의 극이 전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젊은 태양'은 무대 세트 대신 영상을 배경으로 사용해 세트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표현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주인공 태호(프레즐레프)의 내면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갈등을 표현하고, 특수효과 역시 배경음악으로 대신하지 않고 직접 표현해 긴장감을 느끼게 할 예정이다.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 문의 010-4411-0995.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외국도서 실시간 한글 번역

인터파크 eBook 번역 서비스

영어 원서 전자책을 손쉽게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인터파크도서(대표 주세훈)가 국내 인터넷 서점 업계 최초로 eBook 번역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파크 eBook 번역 서비스'는 eBook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다양한 분야의 외국도서를 읽을 때 실시간 한글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번역서비스 출시로 외국도서를 읽을 때 겪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들, 어휘의 정확한 쓰임 등이 궁금하면 검색엔진이나 사전 앱을 일일이 찾아가며 읽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eBook 앱을 나가지 않고 한 화면에서 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해 사전을 뒤적거리는 수고를 덜어준다.

이 외에도 인터파크 eBook 앱은 활용도 높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책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중요한 내용이라 꼭 기억해 두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강조 표시를 해둘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사 시인 주선균 '3월의 DNA'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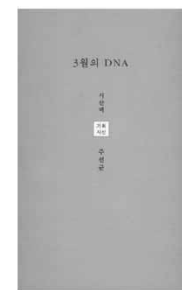
"어느 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불덩이가 솟아올랐다. 아직 형태 불분명하고 흡진 투성이인 그저 그런 형상이지만 그 모습 드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만 있다면 삶은 너무 섭섭하지 않겠는가."

지난 2015년 '시와 사람'으로 등단한 주선균 시인이 첫 시집 '3월의 DNA'(시산맥)를 펴냈다. 시산맥 기획시선으로 발간된 작품집에는 모두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이번 시집의 특색은 시인의 다채로운 발상이 다채로운 표현으로 연결됐는데 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국을 운영하는 현재 약사답게 그는 일반적인 문인과는 다른 궤적의 삶을 살고 있다.

오봉옥 시인은 "주선균은 발상이 좋은 시인이다. 그는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생각해내곤 한다"고 평한다.

"재미(樂)를 뚜껑으로 덮으면 약(藥)이다/ 약(藥)을 업(藥)으로 삼은 지 이십여



년// 이미 질식해 죽을 줄 알았던 재미가 어느 날/ 더는 못 잡겠다는 듯 빨갛게 달고 튀어나왔다// 그 중 글(文) 뿔이 가장 날카롭고 길었다 그 러나 글의/ 포장도로도 아니고 오솔길도 아닌/ 외줄을 타야하는 詩(詩)라니"(뚜껑'중에서)

시 '뚜껑'을 봐도 주 시인의 시적 발상이나 표현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봉옥 시인의 평대로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질식해 죽은 줄 알았던 재미"를 위해 글 재미로 눈을 돌렸다는 표현이 이채롭다.

새로운 발상과 개성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주 시인의 시는 고된 수준을 유지한다. 향후 펼쳐보일 그의 작품 세계가 기대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역사를 부정하는 자, 믿게 될 것이다!

이제는 가정에서 IPTV와 케이블TV VOD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및 단체관람 문의 | 광주CBS 총무국 062-376-8500